

## 에스겔 15장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깨닫게 되며 또 중보하며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6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라들 속으로 흩어질 때 내가 남은 자를 남기리니 너희에게는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칼을 피할 자들이 있으리라.

너희 중 피한 자들은 그들이 잡혀 끌려간 민족들 가운데서 나를 기억하리니 이는 내게서 떠나간 그들의 음탕한 마음과 그들의 우상들을 좇아 음행하는 그들의 눈으로 인하여 내가 상심하였음이라. 그들은 그들의 모든 가증함 속에서 그들이 범한 악에 대하여 자신들을 혐오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은 내가 주인 것과 내가 그들에게 이 재앙을 내리리라고 헛되이 말하지 아니하였음을 알게 되리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손으로 치고 발로 구르며 말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악한 가증함으로 인하여 슬프도다! 이는 그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쓰러질 것임이라.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요, 가까이 있는 자는 칼에 쓰러질 것이며 남아 있어 포위당한 자는 기근으로 죽을 것이라. 이같이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이루리라.

그들의 살해된 자들이 그들의 제단 주위의 우상들 사이에, 모든 높은 언덕 위에, 모든 산 정상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모든 상수리나무 아래, 그들이 자기들의 모든 우상들에게 분향하는 곳에 있을 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 땅을 황폐케 하리니 정녕, 그들의 모든 거주지에서 디블랏을 향한 광야보다도 더 황폐케 하리라. 그리하면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참 이렇게 나라들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들을 남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굳건히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자만 60만이 나왔고 수백만이 나왔을 때도 남은 자들, 즉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에게 할례를 줘서 남은 자들로 하여금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마찬가지로입니다. 유대인들도 앞으로 환란 끝에 남은 자들, 14만 4천을 포함해서 환란 끝에 남은 자들, 그들을 통해서 그 분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가 사탄에 의해서 이미 죄로 황폐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전부다 씻어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를 영원히 멸하고 또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깨달을 때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정결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도 남은 자들이 휴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통치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는 주님과 함께 통치할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수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대 환란에 넘어가죠. 대 환란에 넘어가서 거기서 이삭줍기 식으로 소수가 또 순교를 당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아남을 때 하늘에는 못 올라가도 이 땅에 천국, 천년왕국에 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징계하고 심판하는 목적이 무조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을 택해서 바로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렘던트 이스라엘(Remnant of Israel)입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뭐 남은 자 렘던트를 가지고 요즘에 뭐 크리스찬 중에서 소수가 젊은이들이 이 세상에 남아 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다 일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남은 자에 대해서 잘못해 가지고 지금 교회에다 적용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러기 때문에 14만 4천은 정말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은 동정, 남자 처녀들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지상에서 멸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들을 깨끗하게 해서 영원히 그들을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으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잘못 알고 대부분의 신학교에서는 이스라엘은 이제 버림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교회도 다 버림받은 거죠, 타락했으니,

하나님은 절대로 택한 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 왕국을 이루고 살 이스라엘 민족을 절대 버리지 않듯이 또 예수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번 구원 받은 사람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엄청난 고난 속에 집어넣어 징계할지는 몰라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도 헛되이 창조하지 않고 택한 자들도 버리지 않습니다. 이걸 오해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버림받는 것을 보고 구원을 잃어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누가 정죄하겠느냐? 위해서 죽은 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다 모든 죄를 멸했는데 그것 어떻게 정죄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12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2장 15,16절 내가 그들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 버리고 나라들 속에 그들을 분산시키면 그때에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 중에 몇 사람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부터 남겨 두어 그들이 이르른 이방인 가운데서 그들의 모든 가증함들을 선포하게 하리니 그때에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주인 줄 알리라. 계속 말씀하시죠, 여러 번 얘기 하지만 옛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또 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몰랐듯이 오늘날도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바로 잡고 교훈하는 것을 모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모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걸 모른다고요, 엉뚱한 것을 찾고 있어요. 뭐 기도해 가지고 엉뚱한 것을 보고 그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영특한가 하면 말씀을 떠나서 뭔가 찾는 사람에게는 나타나 가지고 멋지게 나타나 가지고 빛의 천사로 나타나 가지고 속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보면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이 말씀이 임할 때 옛날 읊이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 뱉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결국 이스라엘은 절대 버림받지 않고 반드시 회복 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가 이 말씀 도처에 나옵니다. 도처에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세히 공부하지 않으니까 이들이 멸망당한 것같은 이  
상태만 보고 자기 생각으로 떠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전체를 봐야죠. 징계하는 것이 더  
많아요. 사실.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는가 이걸 못 보니까 구약 성경 속에  
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계획을, 예언을 보지 못 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현대 신학은 대체 신학(Replacement Theology)라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은 이제 버림받았고  
교회가 그들에 대한 약속이 교회로 옮겨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는 용문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버리고 한국을 택해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한국으  
로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별 희한한 사람 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  
경이 틀리니까, 성경이 바른 성경이 아니니까. 하나만 틀려도 잘못 가는 거예요. 지난 번에  
도 얘기했지만 동해, 서해를 가지고 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앞 바다와 뒤 바다인데 지중  
해와 사해인데 말이죠, 이렇게 사탄이 말씀을 바꿔놔 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 우리 한국이 이스라엘민족이다. 한국이 이스라엘과 많이 닮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단군  
이 단 지파다 이런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완전히 정말 자세하게 읽어가지고 연구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단 종파들은 성  
경을 얼마나 연구합니까. 그러나 그들의 교리에 맞게 여기 조금, 저기 조금해서 그렇지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들을 보면 성경공부를 안 해요. 성경공부는 신구약 66권  
을 절절히 다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절절히 공부하지 않으  
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없고 잘못하다보면 내 생각이 들어 가가지고 잘 못 해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 피한 자들은 그들이 잡혀 끌려간 민족들 가운데서 나를 기억하리니 이는 내게서 떠나  
간 그들의 음탕한 마음과 그들의 우상들을 좇아 음행하는 그들의 눈으로 인하여 내가 상심하  
였음이라. 그들은 그들의 모든 가증함 속에서 그들이 범한 악에 대하여 자신들을 혐오할 것이  
라.

심판 때가 되면 이방민족에 가서 불들림 바 되면 자신을 혐오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 갔을 때 그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버들가지에 악기를 달아서 시온의 노래를 불러보라고 말이지, 우리가 어찌 종이 되어 가지고 슬퍼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자신을 미워하는 거죠. 결국은 고통 받을 때 징계 받을 때 자신의 행한 것을 보고 자신을 보고 회개한 거예요. 자신을 혐오하는 사람이 회개하게 되어있습니다. 자신이 미워지면서 회개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회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이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 남은 자들을 남겨두신 목적이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위하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징계 받기 전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징계할 때 자기가 깨닫게 되죠. 야고보서에 보면 고난 받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뻐하는 자는 찬송할 것이요, 고난 받을 때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고, 또 생각을 하게 하시죠. 조금 고난 있으면 생각 안 해요. 깊이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생각하게 되고 그때 이제 회개하게 되는 거죠. 이 구절은 우리 교회 시대 지금 성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들의 음탕한 마음과 그들의 우상을 좇아 했던 그들의 눈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상심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고보서 4장 4절 보면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을 알지 못 하느냐? 알지 못하느냐가 뭐죠? 모르고 있다는 얘기에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 보다도 더 사랑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 읽는 것보다도 TV 보는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도 다른 세상 것들 더 보며, 책을 읽고 신문을 더 열심히 읽고 쓸데 없이 말이죠, 세상 돌아가는 것 우리가 많이 알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알게 되요. 성경에 다 나와 있고 우린 그저 주님 주신 대로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나라가 어떻게 돌아가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얘기하는 건데 그걸 모르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면 뭐해요. 교회들 마다 보면 예배 끝날 때 밥 먹을 때 대게 정치 얘기 하더라 구요.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성도들도 죄를 짓게 되면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참회하죠, 왜? 성령이 있는 사람은 말이죠, 성령께서 슬퍼하시죠. 성령이 슬퍼하기 때문에 우리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을 보면 30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 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같이 하라.

결국 화를 내고 분을 내면 성령께서 슬퍼하십니다. 슬퍼하세요. 그러나 항상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오죠, 왜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기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슬플 때 주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게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구속의 날까지 인을 쳐, 구속의 날이 된다면 우리 휴거의 날을 얘기해요. 구속의 날은 우리 몸을 벗는 날 이에요. 이 몸, 원수 같은 몸, 우리가 구원받기 전이나 똑 같은 몸에 살지만 이 원수 같은 몸 그러나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씀이 들어와 갈라 놓았잖아요, 찢러 쪼갠다고, 갈라 놓았잖아요. 영과 혼 골수와 관절을 찢러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갈라 놓았잖아요. 옛날에는 딱 붙었었어요. 다윗이 내 혼이 진토에 붙었으니 내 혼을 소생시키소서. 이게 뭐 영, 혼, 육이 딱 붙어있으니까 완전히 붙어 있으니까 몸이 하는 대로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가지고 딱 갈라 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죄의 몸을 벗어 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의 몸을 벗어버린 것입니다. 아멘?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벗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고 구속의 날이란 것은 바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몸의 구속이다. 완전히 몸을 던져버리고 주님오시기 전에 죽는 사람은 몸을 던져버리잖아요. 벗어버리죠, 그러나 주님이 살았을 때 오시는 사람은 육이 가만히 있는 채로 이게 벗어지고 새 몸

을 입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다. 이것이 엄청난 신비입니다. 이것을 휴거의 신비라고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구속의 날이 있다는 바로 휴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믿음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죄를 지을 때 마다 내가 비참해질 때 부르짖고 회개할 때 다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남은 자들이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을 회복 시켜주는 것입니다. 1948년에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진 것도 틀림없이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지를 연하게 하고, 지금은 잎사귀들까지도 막 나고 있습니다. 만오천여 명의 메시아닉 쥬(Messianic Jew)들이 이스라엘에만 그렇게 있고 전 세계 도처에 예수를 믿는 예슈아를 구세주로 영접한 많은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잎사귀를 내기 시작한 때가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는 얘기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죠, 결국 이렇게 우리도 정말 죄를 지을 때 마다 이렇게 자신을 혐오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 성령께서 탄식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성령이 없는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란스러운 거예요.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용서할 줄 모르고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고, 옛날에 목사님에게 와서 그랬어요, 어떤 여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나 교회 안 나오겠다고 저 사람만 보면 짜증이 난다고 말이지, 나를 괴롭힌다고 그러니까 또 다른 여 집사님이 또 왔다는 거야, 바로 그 사람은 조금 전에 말한 그 여 집사님이야. 아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그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고? 예수님만큼 억울하냐고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고, 당신이 정말 예수 믿느냐고? 또 어떤 성가대에서는 장로 부인하고 집사 부인이 서로 싸우다가 집사 부인이 장로 부인의 뺨을 때렸대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졌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성찬을 하는데 성찬 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큰 교회예요, 큰 교회, 오렌지 카운트에 있는 교회예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교회를 오게 되면 거듭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요. 그냥 거듭나지 않으

면 가망 없어요, 그냥 앉았다 지옥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까지도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염소가 양을 들어 박는 것처럼 그래서 목사들은 어떡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다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줘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 11절 12절 다 읽었죠,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손으로 치고 발로 구르며 말하라. 참 제가 이 말씀 보니까요, 옛날 시골 살 때 목사님이 안타까우니까 말씀들을 잘 못 깨달으니까 발로 구르는 거예요. 쿵쿵구르며 손바닥으로 치고 강대상을 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답답하죠, 여기에 침이 튀고요, 그렇게 부르짖는 게 제가 눈에 선한데요, 정말 이스라엘 집의 모든 악한 가증함으로 인하여 슬프도다! 외쳐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죠. 이는 그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쓰러질 것임이라. 앞으로 조만간 대 환란 때가 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이나 엄청난 칼과 기근 속으로 들어가는데 요한계시록 공부를 안 하니까 그것을 다 상징이라고 그리고 이걸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양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 무서운 징계를 하고 있구나.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오고 있구나. 내가 어찌 그것들을 피할 수 있겠는가, 이러면서 자백하며 회개할 때 주님을 영접하여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거듭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사람의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막 죄의 짐을 지고 고통을 받고 나는 어떡하는가? 이려고 있다가 교회 왔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혼을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딱 받아 드릴 때, 그 사람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죠. 물론 말씀 안에 성령이 있죠,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도 되고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말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가지고 역사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칼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선포되면 성령이 붙잡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찢러 쪼개면서 결국 회개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 전혀 회

개를 못해요. 또 구원 받지 못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귀머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될 수가 없죠. 구원받은 사람들까지도 성경공부를 안 하니 까 이 시대의 표적을 보면서 아 때가 되었구나. 때에 따른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때에 따른 양식을 먹지 못하니까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복의 김정일이가 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카스트로가 저렇게 물러났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란과 이스라엘 관계가 있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집트에 지금 무슬렘 부라드후드(Moslem Brotherhood)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데모하다 잡으면 민주화 될 줄 알았죠.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아랍 국가들이 전부 무슬렘 나라 된 거, 왜 그런지도 몰라요. 지금 이것을 보면서 성경대로 되어 가고 있어요.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바로 아마겟돈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몰라요, 거듭난 사람마저도 몰라요, 이 교회가 뭘니까? 거듭난 사람들에게 때를 알려주는 이것이 우리 사명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눈을 돌리게 되면 결국은 영적으로 완전히 소경이 되고 누군가가 발을 구르면서 손으로 치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증거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 뭐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쳐야 되죠, 외쳐야 됩니다.

또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요, 가까이 있는 자는 칼에 쓰러질 것이며 남아 있어 포위당한 자는 기근으로 죽을 것이라. 이같이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이루리라.

그들의 살해된 자들이 그들의 제단 위에 우상들 사이에 높은 모든 언덕 위에 모든 산 정상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모든 상수리 나무 아래 그들이 자기들의 모든 분향하는 우상들에게 분향하는 곳에 있을 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칼과 기근과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전염병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거다. 단순한 부주의다. 전염병이 돌면 저 보건당국이 잘못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을 그냥 사임시키고 뭐 이 정도지 절대로, 크리스찬이 대통령이 되었는데도 그렇더라구요, 그리고 무

슨 여러 가지 지진 나고 그러면 천재지변이다 이런 것들, 이렇게 그냥 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누군가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하면 난리가 나죠. 미친 사람 취급 당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칼이 임할 때 회개해야 되고 어떤 죄가 있는가? 또 기근이 임할 때 먼저 자신이 속한 나라와 민족들의 죄를 생각해야 되죠. 전염병이 있을 때 또 어떤 죄를 지었는가? 옛날 우리 조상들은 비가 안 오면 왕들이 회개했습니다. 기우제를 드렸어요, 그러면 비가 왔습니다. 그들은 하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몰랐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했죠. 중국도 상제(上帝)라 해 가지고 중국 황제들이 상제에게 기도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래도 깨끗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 그렇게 독감이 걸려가지고 닭들이 떼거지로 다 실려 나가고 돼지 소들이 나가자빠져 죽는데도 전혀 그런 얘기 들어 보지 못해요. 교회마저도 잠잠합니다. 13절 그들의 살해된 자들이 재단 주위에 우상들 사이에 모든 높은 언덕 위에 모든 산 정상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이렇게 이걸 뭐죠? 그들이 우상 섬기든 장소입니다. 바로, 그곳에 있을 때 너희는 내가 주 인줄 알리라. 그들을 그 곳으로 인도한다. 그곳에서 죽게 만드는 거죠. 산으로 가서 죽게 만드는 거죠, 몰아가서 죽게 만드는 거죠, 다윗은 포로 잡혀갔던 바벨론의 강변에서 노래할 것을 이미 알고 노래했습니다. 우리 137편 시편 이미 다윗은 알았죠, 다윗 시대는 포로 안 잡혀갔죠, 그런데 이미 바벨론에 나중에 포로 잡혀갈 것을 이미 알았어요. 성령으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정녕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왜 하프들을 그곳 가운데 있는 버드나무들에 걸었나니 이는 거기서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간 자들이 우리에게 한 노래를 청하였고 우리를 황폐케 한 자들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시온의 노래 중 한 곡을 우리에게 부르라”함이었더라. 우리가 타국 땅에서 어찌 주의 노래를 부르리요?

오 예루살렘아, 내 오른손으로 그 기교를 잊게 하라, 기교를 잊게 하라. 이미 예언한 거죠, 알았습니다. 다윗 때는 포로 잡혀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될 것을 이미 얘기하고 이스라엘이 시온을 생각하면서 각 나라에 흩어져서 울 것을 말씀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

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징계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민족들 이렇게 징계하면서 마침내 이들이 내가 주 인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스라엘이 정말 디블랏처럼 황폐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사람들이 회개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들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정말 예수 아를 저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LA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통하여 때를 분별하고 앞으로 닥칠 대 환란을 바라 보며 저들이 회개하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거듭나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철저히 회개하면서 예수의 피로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부음을 통하여 깨끗하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